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김남석, 고영주*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Namsuk Kim, Yeong-Ju K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자료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3,4학년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3.55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52점, 진로정체감은 2.64점이었으며, 진로정체감과 셀프리더십($r=.40$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5$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6$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3%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Abstract This study was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1 to October 31, 2019.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0 third and fourth grade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score of self-leadership was 3.5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2, and career identity was 2.64.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identity, self-leadership($r=.40$, $p<.001$),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r=.65$,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r=.66$,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identity were major of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51.3%).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career guidance and programs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Corresponding Author : Yeong-ju Ko(yjko@chu.ac.kr)

Received November 13,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Revised December 23, 2019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대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숙련되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의 확보는 병원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3.8 %이며,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42.7%로 간호사 이직률보다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훨씬 높았고[2] 신규간호사의 이직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응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인으로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직을 선택하고 임상현장에 적응 하지 못하고 이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신규간호사의 조기이직으로 연결되는 임상 현장의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학시절에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4].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5]. 또한,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6]. 간호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확신 정도는 추후 간호 업무수행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간호전문인으로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로 연결 된다[7,8]. 따라서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정체감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9] 졸업 후 간호학생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정체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졸업 후 간호학생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다[10]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학생들은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직업적 선택을 미리 한 상태로 들어오며[11] 대학생활 동안 바쁜 교과과정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4, 10]. 그러나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가 되겠다는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병원으로의 취업 외에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11]. 이에 올라

른 진로 결정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현실화시키는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이 있다[12]. 셀프리더십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13], 자기통제와 자기주도성을 토대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변화 시켜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14]으로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평가 등 자기행동에 대한 자신감의 확신을 의미 한다[15]. 진로결정에 중요한 시기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수립하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방안 및 졸업 후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 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C대학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 중 연구목적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구[16]에 따라 G-power 3.1.9.4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15, 검정력 .80 예측요인 8개로 산정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09명이었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배부된 131부 중 회수된 120부 중 응답이 부실한 10부를 제외한 110명으로 대상자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17]이 개발한 RSLQ(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Kim과 Han[18]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3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행동중심 전략, 자연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Kim과 Han[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0-.87$,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19]가 개발한 CDMESE-SF(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을 Kim과 Kim[20]이 수정 보완한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와 Daiger[21]가 개발한 진로정체감(My Vocational Situation, MVS) 측정도구를

Kwon과 Kim[22] 수정 보완한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89명(80.9%) 남학생이 21명(19.1%)이었고 평균 연령은 23.17세이었다. 3학년 61명(55.5%), 4학년 49명(44.5%)이었고 입학 동기는 '본인이 원해서'가 49명(44.5%)가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64명(58.2)으로 가장 높았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51명(46.4%)로 가장 높았다(Table 1 참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Variable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21 (19.1)
	Female	89 (80.9)
Age		23.17 ± 1.79
Grade	3rd	61 (55.5)
	4th	49 (44.5)
Motivation for nursing	Voluntary	49 (44.5)
	High employment	39 (35.5)

	Recommendation	19	(17.3)
	Service	3	(2.7)
Satisfaction of practice	Satisfaction	39	(35.5)
	Moderate	64	(58.2)
	Non-satisfaction	7	(6.4)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51	(46.4)
	Moderate	49	(44.5)
	Non-satisfaction	10	(9.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3.55점(±.52)이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3.52점(±.61)이었고,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64점(±.47)이었다(Table 2 참고).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3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들이 더 높았고($t=-2.01, p=.047$), 진로정체감의 경우 3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

들이 더 높았다($t=-2.38, p=.019$). 입학동기는 '본인이 원해서'라고 답한 군이 '주변의 권유'때문이라고 답한 군보다 더 높았다($F=4.08, p=.009$).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보통'보다 '만족'하는 경우 더 높았고($F=6.13, p=.003$), 진로정체감의 경우 '보통'보다 '만족'하는 경우 더 높았다($F=14.00, p<.001$). 전공 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만족'이 '보통', '불만족'보다 높았고($F=9.34, p<.001$), 진로정체감의 경우 '만족'이 '보통', '불만족'보다 높았다($F=20.37, p<.001$)(Table 3 참고).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r=.40,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r=.65, p<.001$), 셀프리더십($r=.66, p<.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Table 4 참고).

Table 2. Subjects'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N=110)

Variable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SD	
	Total		3.55±.52	
Self-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Total	3.61±.55	
		Self-goal setting	3.38±.81	
		Self-reward	3.96±.78	
		Self-punishment	3.45±.78	
		Self-observation	3.61±.64	
			Self-cueing	3.74±.91
	Natural reward strategies	Total	3.49±.70	
		Focusing on natural reward	3.49±.7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Total	3.48±.60	
		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3.52±.77	
Self-talk		3.37±.77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	3.50±.66	
	Total		3.52±.61	
CDMSE		Career relating data gathering	3.47±.76	
		Setting an objective	3.45±.70	
		Making a plan	3.46±.74	
		Solving a problem	3.55±.62	
		Self evaluation	3.67±.63	
Career identity	Total		2.64±.47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3. Differences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Variable	Categories	Self-leadership		CDMSE		Career identity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44±.40	.98	3.54±.625	.68	2.63±.465	-.70
	Female	3.57±.54	(.329)	3.44±.592	(.498)	2.71±.533	(.483)
Grade	3rd	3.50±.51	-.98	3.41±.602	-2.01	2.55±.430	-2.38
	4th	3.60±.53	(.326)	3.65±.618	(.047)	2.76±.511	(.019)
Motivation for nursing	Voluntary ^a	3.65±.47		3.65±.598		2.78±.489	
	High employment	3.48±.56	1.66	3.38±.647	2.06	2.58±.485	4.08
	Recommendation ^b	3.38±.53	(.184)	3.40±.586	(.109)	2.38±.313	a)b
Satisfaction of practice	Service	3.74±.49		3.90±.100		2.92±.188	
	Satisfaction ^a	3.67±.48		3.78±.572	6.13	2.93±.476	
	Moderate ^b	3.48±.51	1.73	3.38±.571	(.003)	2.48±.387	14.00
Satisfaction of major	Non-satisfaction	3.45±.71	(.182)	3.30±.847	a)b	2.55±.522	a)b
	Satisfaction ^a	3.67±.54		3.74±.599	9.34	2.91±.480	20.37
	Moderate ^b	3.47±.46	3.05	3.39±.554	(.001)	2.45±.318	(.001)
	Non-satisfaction ^c	3.31±.57	(.051)	2.99±.551	a)b, a)c	2.25±.422	a)b, a)c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N=110)

Variable	Career identity	CDMSE	Self-leadership
	r(p)		
Career identity	1		
CDMSE	.65 (.001)	1	
Self-leadership	.40 (.001)	.66 (.001)	1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ty (N=11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33	.215		6.22	<.001
CDMSE	.420	.056	.543	7.49	<.001
Satisfaction of major	.336	.123	.352	2.73	.007
R ² =.527, Adj. R ² =.513, F=39.33(p<.001)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39.33, p<.001), 유의한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이며 설명력은 51.3%이었다(Table 5 참고).

3.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는 Dummy 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는 1.17~1.23로 모두 10이하, 공차한계는 .81~.85로 0.1이상으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 정규성은 Durbin-Watson 통계량이 1.7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진로지도 방안 및 졸업 후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3.51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3]에서 3.4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다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하위영역으로는 행동중심 전략이 3.61점, 자연보상 전략이 3.49점, 건설적 사고전략이 3.48점으로 행동중심 전략이 높고 보상, 건설적 전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등의[23] 연구에서 셸프리더십의 하위 영역 중 행동중심 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행동중심 전략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으로 [24]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목표 달성에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내재적 동기부여인 과업 자체의 즐거움, 구체적인 인지전략 사용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셸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업 자체의 즐거움과 인지전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셸프리더십의 경우 성별, 학년,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1,2학년보다 3,4학년에서 셸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셸프리더십 역량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 대상자는 1,2학년을 포함하지 않고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년 별 차이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2점으로,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3.28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1]에서 3.4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는 1,2학년을 포함하지 않고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기평가가 3.67점으로 가장 높고, 목표설정이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Lee와 Kim[11]의 연구에서 자기평가가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았으며 Jung 등[25]의 연구에서는 정보수집이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하위영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15]으로 본 연구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목표설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25]와 유사하며, 학년,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13]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경우,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64점으로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2.6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비슷하지만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2.77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으로 [5] 간호학과에 입학 한 신입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학년,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족의 권유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입학한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26]와 유사하다. Jung등[2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경우, 대학생활을 하면서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셸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력은 51.3%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5]와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6]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 동안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아진다면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법 개발과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셸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추후 매개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이며,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51.3%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인을 규명하고, 추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S. Kim & K. Y. Park.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536-543. DOI: 10.11111/jkana.2013.19.4.536
- [2]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8).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http://www.khna.or.kr/main.php>
- [3] J. W. Lee, N. Y. Lee & Y. S. Eo. (2018).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10.5762/KAIS.2018.19.1.311
- [4]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5] J. L. Holland & J. E. Holland.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
- [6] D. V. Tiedeman & R. P. O'Hara.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US: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7] K. N. Kwon & E. H.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1), 19-28.
- [8] J. H. Kim, S. N. Jang, H. J. Ji, G. J. Jung, Y. J. Seo, J. H. Kim & Y. S. Choi. (2015).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27-6035. DOI: 10.5762/KAIS.2015.16.9.6027
- [9] I. S. Kim, M. J. Son & H. G. Park. (2017).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302-312. DOI: 10.5762/KAIS.2017.18.2.302
- [10] E. H. Choi.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15-21.
- [11] K. A. Lee & J. H. Kim. (2015).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42-49. DOI: 10.16952/pns.2015.12.1.42
- [12] S. W. Shin. (2014).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self-concept, career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1), 23-46.
- [13] G.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DOI: 10.5762/KAIS.2016.17.2.436
- [14] C. C. Manz.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15] K. M. Taylor & N. 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16] Y. S. Kang & S. K. Hwang. (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 979-989. DOI: 10.5762/KAIS.2013.14.7.3301
- [17]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18] Y. K.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 [19]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4).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20] M. J. Kim & B. W. Kim.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 [21]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22] Y. H. Kwon & C. N. Kim. (2002).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2), 216-229.
- [23] M. O. Lee, M. Y. Lee & S. Y. Kim. (2015).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417-425.
- [24] C. C. Manz & Sim, H. P. (1980). Self-management as ad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 361-367.
- [25]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 [26]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DOI: 10.5762/KAIS.2014.15.5.2937

김 남 석(Nam-Suk Kim)

[정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취약계층, 간호교육
- E-Mail : kns2015@chu.ac.kr

고 영 주(Yeong-Ju Ko)

[정회원]



- 2015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도구개발, 간호교육
- E-Mail : yjko@chu.ac.kr